

2021년

신년 가정 예배



www.junahim.kr
02-2237-5009

주내힘교회

신년 가정 예배 순서

※ 예배 전 유의사항

순서에 들어있는 '말씀나눔'은 같이 읽거나
각자 가정 상황에 맞추어 고쳐서 해도 좋습니다.

개식사 인도자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301장 (통일 460장) 다같이

301 지금까지 지내온 것

(통일 460)

보통으로

1. 지금 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을 해라.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3. 주님 다시 뵈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한 이 없 는 주 의 사 랑 어 찌 이 르 말 하 라
물 뜻 이 부 은 시 는 주 벗 을 날 해 족 하 다
후 거 운 짐 주 깨 말 겨 도 멀 잖 네

자 나 깨 나 주 의 손 이 항 상 살 펴 주 시 고
사 랑 없 는 거 리에 나 험 한 산 길 해 들 아 가
나 를 위 해 에 비 하 신 고 항 짐.

모 든 일 을 주 암에 서 형 통 하 게 하 시 네
주 의 손 을 굳 게 잡 고 찬 통 하 며 가 리 라
아 버 지 의 품 안에 서 영 원 톡 살 리 라

기 도 가족 중 한 사람
성경말씀 . . . 시편 37편 23~24절(구약 828쪽) . 맡은이

23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24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말씀나눔 ‘붙드시는 하나님’ 맡은이

말씀나눔

불드시는 하나님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2021년 한해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시작부터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올해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불드심이로다”
(시 37: 23-24)

우리는 인생에 숱한 고난을 겪고 이겨낸 다윗의 고백을 통해 오늘날 큰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부분에서는 받아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한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야 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쁜 길을’ 믿음으로 걷는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불들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이 길을 가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꼭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난이 많았지만 그렇기에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누구보다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이 힘들어도 담대히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알게 된 사람입니다.

올 한해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믿고 자신의 삶에 자리에서 힘내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가정과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한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걸음마다 새겨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 송 384장 (통일 434장) 다같이

384 나의 갈길 다가도록 (통일 434)

보통으로

1. 나의 갈길다가 도록 예수인 도하시니
2. 나의 갈길다가 도록 예수인 도하시니
3. 나의 갈길다가 도록 예수인 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궐 어찌 의심하리요
어려운 일당한 때도 죄를 온 힘 해주시네요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믿음으론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나는 심히 고단은 자하고 영혼을 나우라 갈때에
성령감화로 받은 영광을 헌신하나우라 갈때에

무슨 일을 만나 든지 만사를 형통하리라
나의 앞에 반석에 서서 송에 수나인 도하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에 수나인 도하하셨네

무슨 일을 만나 든지 만사를 형통하리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셈물나게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에 수나인 도하하셨네 아멘

주기도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